



▲ 제약/바이오
Analyst 이태영
02. 6098-6658
taeyoung.lee@meritz.co.kr

Meritz 제약/바이오 Weekly

칠전팔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TY's Pick] –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야기 1 – 글로벌 제약사의 Exodus?

'17년 국내 치매 환자수는 약 72만명이며, '43년에는 200만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 아직까지 단기간 증상 완화 약물 이외 출시된 사례 없음.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중 60% 이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미충족 수요는 질병과 관련된 신경 퇴화의 진행을 멈추거나 지연시키는 것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발병기전과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된 연구는 없음. 베타 아밀로이드(β -amyloid; A β), 타우(Tau) 단백질에 따른 뇌세포 손상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음. 생성된 A β 를 제거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Biogen (aducanumab)이 임상 3상 진행 중.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인 BACE1 저해제는 현재 Eisai/Biogen 그룹의 E2609와 AstraZeneca/Eli Lilly 그룹의 AZD3293이 임상 3상 진행 중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5일 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이 중 신약개발 관련 예산 약 2,000억원 규모. 국내 개발 업체(메디포스트, 젬백스 등)에 대한 지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그 악의 SWOT] – 마침내 찾은 알츠하이머 치료의 답? – Aducanumab[Biogen]

Aducanumab은 Neurimmune이 개발 중이던 베타 아밀로이드반(beta amyloid plaque)타겟 항체. 지난 '07년 Biogen이 총 규모 3억 8,000만 달러의 계약으로 도입. 이후 진행된 임상 1B상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의 주요 지표인 MMSE, CDR수치의 유의한 개선 확인. 이를 기반으로 임상 3상 '15년 8월 시작. 유사 계열 물질인 Eli Lilly의 solanezumab이 임상 3상에서 실패함에 따라 현재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solanezumab의 실패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 접근법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역시 증폭 시킨 상황

[금주의 탐방] – 메디포스트(KQ:078160)

'17년 제대혈 은행 부문 실적 회복 시작. '18년 평년 수준까지 회복 기대. 카티스템의 경우 '17년 P, Q 모든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장 기록. '18년은 국내 신규 병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대. 작년말로 예정되어 있던 일본 IND 신청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목표. 카티스템 관련 논문의 경우 작년 상반기 작성 완료하고 제출 위한 준비중. 치매치료제인 뉴로스템 한국 1/2a상 1단계 완료하고 2단계 진입 준비중이며, 얼마 전 미국 FDA로부터 1/2a상 IND 승인. 이외 주사형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뉴모스템 등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파이프라인 준비 중

[TY's Pick] 알치하이머 치료제 이야기 1 – 글로벌 제약사의 Exodus?

'17년 국내 72만명 유병

치매(Dementia)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노인성 질환이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17년 국내 치매 환자수는 약 72만명이며, '43년에는 200만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30년 7,470만명이 치매를 앓게 되며, 총 2조 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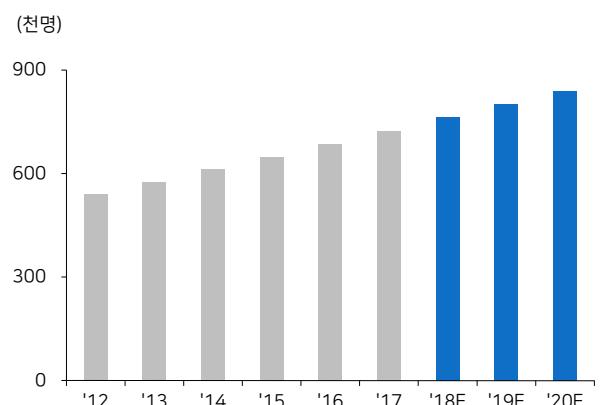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여러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기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 이외에는 출시된 사례가 없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중 60% 이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다. 이 외에 혈관성 치매, 복합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파킨슨병성 치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 치매 유형인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기억, 판단, 언어능력 등의 지적인 기능의 감퇴 및 일상생활 능력, 인격,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질병 진행을 조절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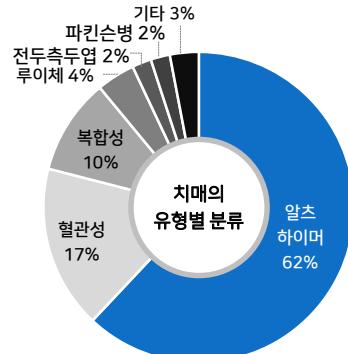
기존 치료제인 아리셉트, 엑셀론, 라자다인, 나멘다의 경우 일시적인 인지기능 향상 외의 기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치료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미충족 수요는 질병과 관련된 신경 퇴화의 진행을 멈추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림1 국내 치매 환자수 추이 및 전망



자료: 중앙치매센터,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치매의 유형별 분류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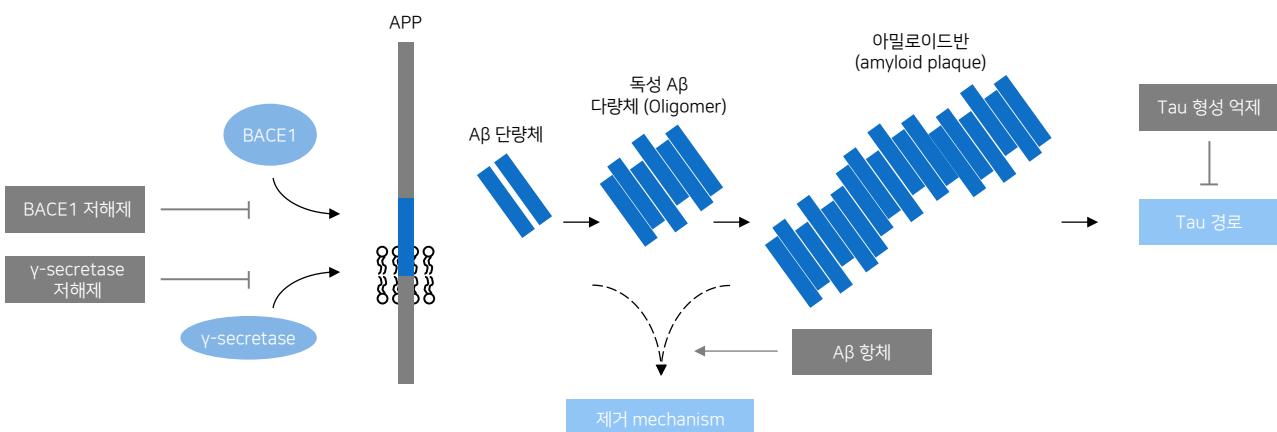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유력한 Target 두 가지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원인

아직까지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발병기전과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된 연구는 없다. 베타 아밀로이드(β -amyloid; A β)의 과도한 침착, 타우(Tau) 단백질의 과인산화에 따른 뇌세포 손상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두 가지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없애는 기전을 가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분야는 생성된 A β 를 제거해주는 방식의 치료제다. Eli Lilly의 solanezumab의 경우 가장 빠른 결과 도출이 기대 되는 후보물질 이었으나 임상 3상에 실패했다. 현재 Biogen(aducanumab)이 바통을 이어받아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인 BACE1 저해제 역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현재 Eisai/Biogen 그룹의 E2609와 AstraZeneca/Eli Lilly 그룹의 AZD3293이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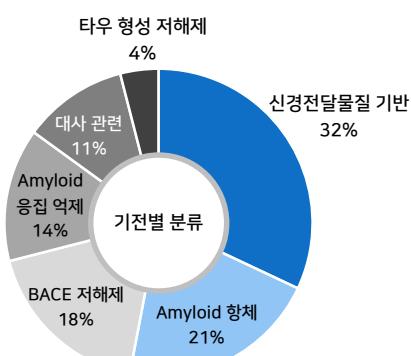
그림3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전략



주: BACE (β -secretase),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A β (β -amyl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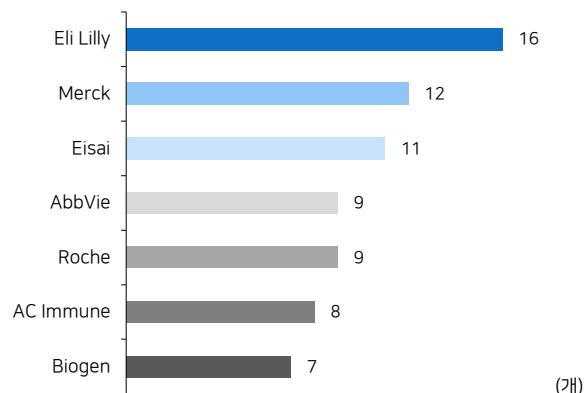
자료: Nature,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임상 3상 단계 알츠하이머 약물의 기전별 분류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제약사별 보유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 Cortellis,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계속되는 실패에 Bigpharma Exodus?

연이은 실패 발표

지난 1월 6일 글로벌 제약사인 Pfizer는 8개의 후보물질을 활용하여 진행 중이던 신경과학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관련 인력 약 3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다. 8개의 파이프라인 중 4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Alzheimer's Disease, AD)를 치료하기 위한 후보물질들이었다. 이 외에도 지난 '16년 12월 Eli Lilly가 solanezumab의 최종 개발 실패를 선언했으며, '17년 2월 Merck 가 verubecstat의 연구 중단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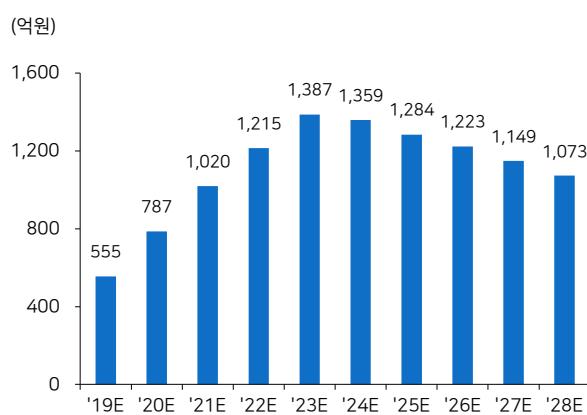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이러한 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치료 환자군을 더욱 좁혀 나가는 방식, 더 많은 용량을 더욱 초기 질병 단계에서 투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주도 연구개발 투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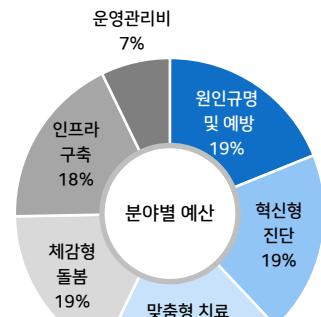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는 치매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월 5일 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의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0년간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중 신약개발을 위한 예산은 약 2,000억원 규모로 국내 개발 업체(메디포스트, 쟈백스 등)들에 대한 연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림6 치매연구개발사업 사업비 규모



자료: 보건복지부,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치매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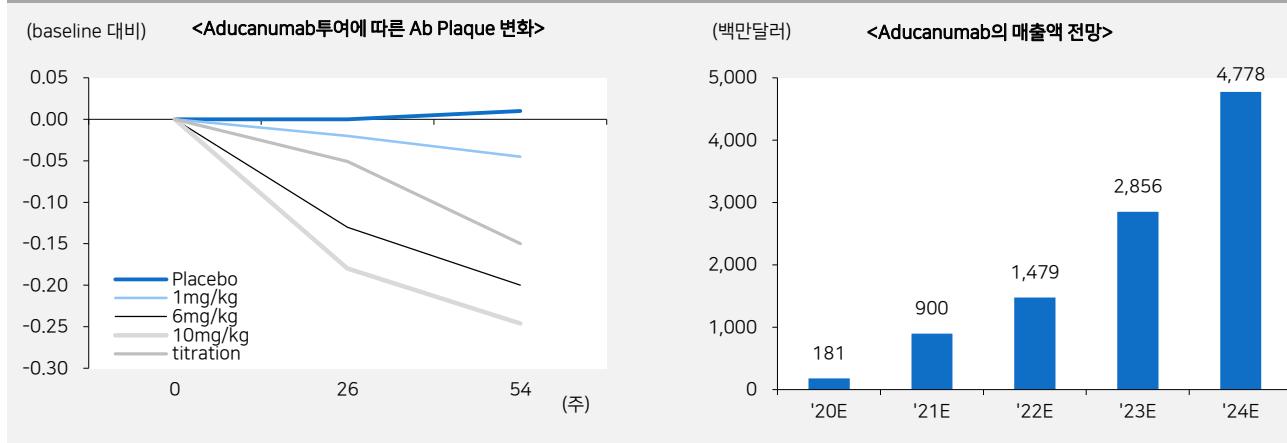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 약의 SWOT] 마침내 찾은 알츠하이머 치료의 답? – Aducanumab [Biogen]

Strengths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알츠하이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항체 의약품. 용해된 형태의 다양체, 불용성 섬유형등 응집된 형태의 Aβ를 타겟 전초증상(prodromal) 혹은 초기(mild)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 1b 상에서 우수한 베타 아밀로이드반(beta Amyloid plaque)감소 효과를 보임 MMSE(간이정신상태검사)결과가 유사 계열 약물인 Eli Lilly 의 solanezumab 대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 용량(6mg/kg)에서 인지 기능 개선을 증명하는데 실패함 가장 흔한 부작용인 뇌종창(ARIA-E)이 대부분의 치료군에서 발생함 위약 대비 두통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치료를 요하는 면역원성 역식 3% 발생 외래 방문을 통한 주사 투여 방식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의 질병 조절(Disease modifying) 알츠하이머 치료제 가능성 임상 성공시 초기 단계 치매치료제에 대한 FDA 가이던스에 따라 빠른 허가 가능 초기 단계 진단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 높음 알츠하이머 분야 전문기업인 Eisai 와 협업에 따른 시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기 단계 질환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허가 여부가 불확실함 최근 연이은 실패에 따라 Aβ 형성 억제 약물 자체에 대한 의심 증폭 질병 조절 기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기존 치료제 대비 장점으로 부각 되었던 부분이 사라짐

Figure & Chart – Aducanumab이 보여준 우수한 효과



자료: Cortellis, Bioge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아밀로이드 가설의 성패를 가를 핵심 후보

Aducanumab은 Neurimmune^o 개발 중이던 베타 아밀로이드반(beta amyloid plaque) 타겟 항체다. 지난 2007년 Biogen이 총 규모 3억 8,000만 달러의 계약으로 판권을 도입했다. 이후 진행된 임상 1B상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의 주요 지표인 MMSE, CDR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임상 3상은 지난 2015년 8월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유사 계열 후보물질인 Eli Lilly의 solanezumab이 임상 3상에서 실패함에 따라 현재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Aducanumab의 임상 1b상을 통해 확인된 알츠하이머 치료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MMSE 점수의 개선 정도가 solanezumab 대비 우수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olanezumab의 실패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 접근법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역시 증폭시켜 놓았다.

[NEWS] 국내 및 글로벌 주요 뉴스

키트루다 글로벌 매출 급증, 옵디보 맹주격 (02.07)

의약뉴스

옵디보(니볼루맙, BMS)가 독주하던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키트루다(펨프롤리주맙, MSD)의 성장폭이 눈에 띈다. 옵디보에 앞서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좀처럼 외형을 키우지 못하던 키트루다는 지난해 몸집을 크게 불리며 성장이 정체된 옵디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지난해 키트루다의 연간 매출액은 38억 900만달러, '16년 대비 172% 성장했다. 옵디보 역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17년 매출액 49억 4,9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1.1%성장에 그쳤다.

현마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2건 추가 (02.07)

팜뉴스

한미약품의 당뇨 치료 바이오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새로운 임상시험 3상 과제 2건이 올해 추가 진행된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사노피는 7일 4분기 실적발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사노피는 3상 임상 결과를 토대로 '21년 미국 FDA에 에페글레나타이드 시판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추가되는 실험은 1) 기저 인슐린 병용요법, 제2형 당뇨병 치료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경구용 치료제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을 경쟁약물인 트루리시티와 비교하는 임상연구이다.

글로벌 빅파마, 5% 성장도 쉽지 않다 (02.08)

의약뉴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헬스케어 분야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빅파마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해어나질 못하고 있다. '17년 실적을 공개한 주요 빅파마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집계 대상 15개 업체 중 5%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제약사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제약사는 사이어로, 27.9%의 매출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대로 길리어드는 하보니와 소발디 등 C형 간염 치료제들의 매출 급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1% 역성장을 기록했다.

메디톡스, '메디톡신' 中 시판 허가 신청 완료 (02.09)

의약뉴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중국 시판 허가 신청을 완료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중국 시판 허가 신청(NDA)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중국식품의약품국(CFDA)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중국 내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최근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시험 통계 분석을 진행해왔다. 또한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15년 중국 내 미용성형관련 리드업체인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합작법인 '메디블룸 차이나'를 설립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도 마친 상태이다. 이번 신청이 예정대로 승인되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셀트리온 그룹, 해외 3공장 건설 상반기 최종 후보지 결정 (02.09)

팜뉴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이 지난 8일과 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018 셀트리온헬스케어 인터내셔널 써밋'에서 2030년까지 계획된 셀트리온의 차세대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시장 전략 등을 공개했다. 이미 지난해 중국 바이오제약 기업과 합자 법인 설립을 발표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란투스 등 1세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 생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 3공장 건설 계획은 여러 국가의 후보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인터내셔널 써밋은 글로벌 파트너사 CEO 및 고위 임원들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초 개최되는 행사이다.

[국내] 주간 동향

Coverage 금주 동향

Name	적정주가	종가	시가총액 (십억원)	Performance(%)		
				1W	1M	YTD
셀트리온	260,000	288,000	35,327.9	-4.5	-1.5	30.3
한미약품	720,000	536,000	6,102.7	-4.8	-8.7	-8.2
유한양행	280,000	211,000	2,576.2	-7.3	-4.3	-3.7
휴젤	580,000	535,000	2,304.6	-7.8	-4.2	-4.4
종근당	175,000	132,000	1,242.0	-4.7	-4.7	-0.2
에스티팜	43,000	39,500	736.9	-10.0	26.4	19.5
보령제약	45,000	52,000	459.7	-7.3	10.5	8.3
대원제약	25,000	21,850	397.7	-0.7	2.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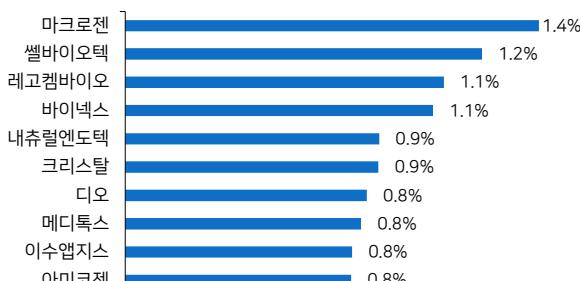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1주간 수익률 Top&Bottom 3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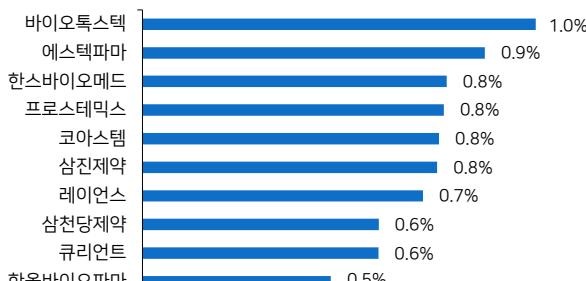
종목	종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formance(%)			5일 누적 기관	순매수 외국인	대금(백만원)	개인
			1W	1M	YTD				
고려제약	14,350	158	90.3%	97.1%	103.6%	345	-6,997	6,836	
명문제약	10,500	258	72.1%	74.4%	79.3%	600	-4,310	3,883	
진양제약	7,730	93	45.0%	68.8%	68.0%	4	-1,342	1,320	
녹십자랩셀	58,200	614	-21.4%	23.7%	16.4%	-1,992	593	878	
클래시스	5,580	337	-19.8%	40.9%	34.0%	-533	31	537	
바이로메드	203,900	3,253	-19.5%	24.3%	24.9%	5,788	-53,202	47,481	

자료: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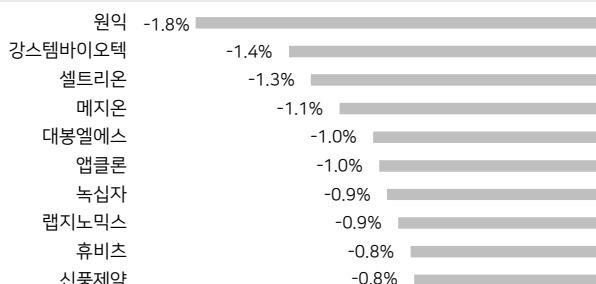
기관 매수 강도 상위 10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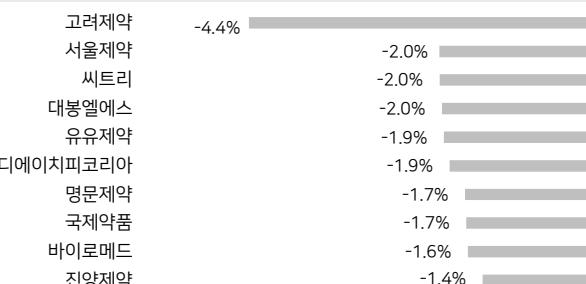
외국인 매수 강도 상위 10개 종목



기관 매수 강도 하위 10개 종목



외국인 매수 강도 하위 10개 종목



자료: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간 동향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수

지수	종가	Performance(%)			
		1D	1W	1M	YTD
NASDAQ	7240.9	-2.0	-3.5	1.5	7.0
NASDAQ BIO	6874.5	1.4	-5.1	-5.3	1.8
MSCI 글로벌헬스케어	3325.7	0.9	-5.8	-5.6	1.7
MSCI 미국헬스케어	223.0	0.5	-5.8	-5.8	0.4
MSCI 유럽헬스케어	260.0	1.4	-5.7	-5.5	1.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

지수	종가	Performance(%)			
		1D	1W	1M	YTD
KOSPI	2,363.8	-1.8	-6.4	-5.8	-4.2
의약품	13,302.1	1.7	-4.2	1.9	7.5
의료정밀	2,949.8	-0.3	-4.6	0.7	-2.6
KOSDAQ	842.6	-2.2	-6.3	1.5	5.5
의료,정밀기기	1,740.5	-2.7	-6.3	4.8	4.0
제약	11,610.0	-2.3	-8.4	-1.0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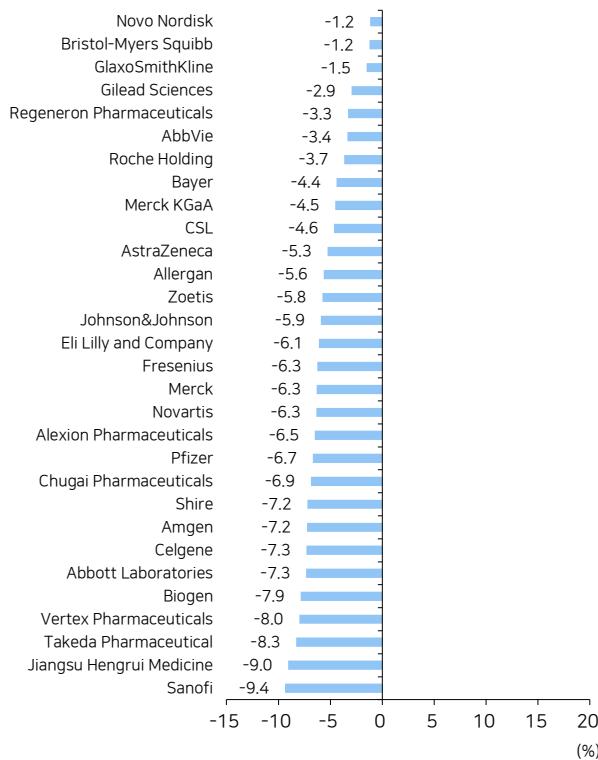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Top 25 제약/바이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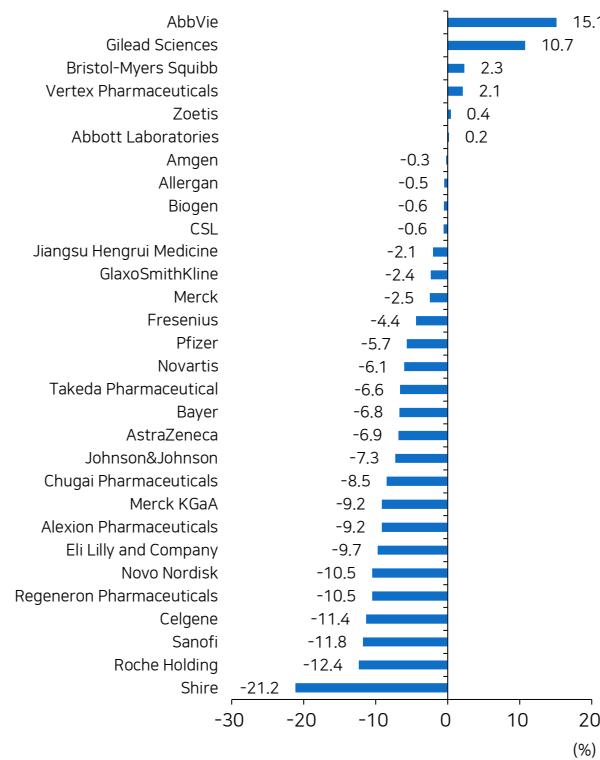
종목	시가총액 (조원)	Performance(%)				PER		PBR		ROE	
		1D	1W	1M	YTD	18E	19E	18E	19E	18E	19E
Johnson&Johnson	379.3	2.5	-5.9	-10.0	-7.3	16.0	15.2	4.7	4.2	30.9	32.1
Novartis	234.9	-0.9	-6.3	-7.6	-6.1	15.4	14.3	2.5	2.5	16.9	17.7
Roche Holding	216.9	-0.7	-3.7	-12.6	-12.4	13.0	12.6	5.7	5.0	45.8	41.0
Pfizer	221.9	1.6	-6.7	-6.3	-5.7	11.8	11.4	3.2	3.2	27.2	30.4
AbbVie	193.7	2.6	-3.4	11.6	15.1	15.0	13.0	16.4	10.3	129.5	93.0
Merck	162.9	0.3	-6.3	-4.2	-2.5	13.3	12.6	4.2	4.1	26.6	29.3
Novo Nordisk	133.8	-0.4	-1.2	-12.0	-10.5	18.6	17.8	12.9	11.6	72.4	66.6
Amgen	136.5	0.2	-7.2	-5.1	-0.3	13.1	12.4	4.6	4.0	28.6	28.1
Sanofi	106.6	-2.6	-9.4	-13.6	-11.8	11.3	10.4	1.3	1.3	11.7	12.4
Bayer	106.8	0.2	-4.4	-8.5	-6.8	13.9	12.7	2.2	2.0	15.6	16.1
Bristol-Myers Squibb	111.8	0.0	-1.2	1.1	2.3	19.0	16.0	6.6	5.9	34.2	34.1
Abbott Laboratories	108.5	1.6	-7.3	-2.8	0.2	20.1	17.8	2.9	2.8	22.2	23.2
Gilead Sciences	113.1	1.4	-2.9	0.8	10.7	12.2	11.9	4.7	4.7	31.3	31.8
Eli Lilly and Company	91.5	2.7	-6.1	-11.5	-9.7	15.7	14.4	5.6	4.9	34.2	31.0
GlaxoSmithKline	96.2	-1.0	-1.5	-3.0	-2.4	12.2	11.8	137.3	54.5	215.6	126.9
AstraZeneca	90.8	-1.5	-5.3	-7.1	-6.9	18.5	16.7	6.2	6.5	17.0	23.6
Celgene	75.8	1.6	-7.3	-12.3	-11.4	11.0	9.0	5.3	3.7	66.4	53.6
Biogen	73.0	1.6	-7.9	-5.9	-0.6	12.8	12.0	3.9	3.2	29.7	25.6
Allergan	59.0	-0.9	-5.6	-6.4	-0.5	10.4	9.8	0.8	0.8	3.2	4.4
CSL	53.9	-1.7	-4.6	-1.1	-0.6	31.2	27.1	12.2	9.8	44.0	40.1
Shire	42.0	-0.6	-7.2	-16.0	-21.2	8.0	7.3	1.1	1.0	15.2	15.3
Merck KGaA	47.2	-0.1	-4.5	-11.8	-9.2	13.4	12.3	2.2	2.0	15.7	15.7
Takeda	47.5	-2.6	-8.3	-10.4	-6.6	26.7	27.9	2.4	2.4	8.9	8.1
Fresenius	45.9	-0.2	-6.3	-5.6	-4.4	17.5	15.7	2.2	2.0	12.9	13.1
Regeneron	39.5	4.3	-3.3	-8.2	-10.5	18.1	16.0	4.7	3.8	27.2	24.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1주간 수익률



글로벌 제약/바이오 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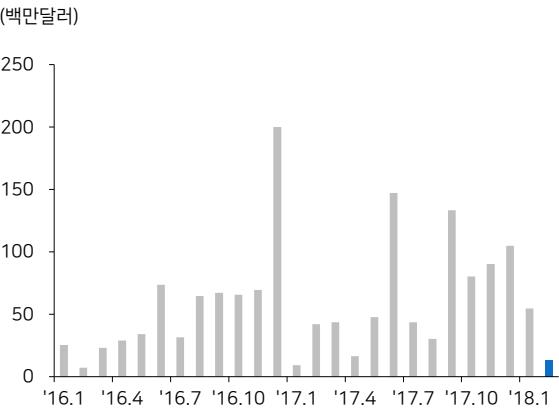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Numbers] 주요 제품 수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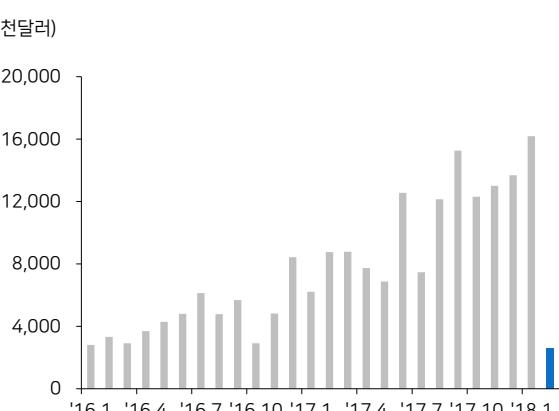
면역관련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추정)

기간	수출금액(백만달러)	중량(톤)	YoY(%)	QoQ(%)
'17.1	9.3	1.7	-63.7	-85.9
'17.2	42.3	6.3	483.1	-39.2
'17.3	43.7	7.3	87.9	-78.1
'17.4	16.5	3.0	-43.0	77.8
'17.5	47.7	8.6	39.0	12.8
'17.6	147.3	20.4	99.7	236.8
'17.7	43.8	7.8	38.1	164.9
'17.8	30.4	6.8	-53.1	-36.3
'17.9	133.4	24.3	98.4	-9.5
'17.10	80.5	15.7	22.3	83.8
'17.11	90.4	15.1	30.1	197.4
'17.12	105.0	24.0	-47.5	-21.2
'18.1	54.8	9.8	489.0	-31.9
'18.2	13.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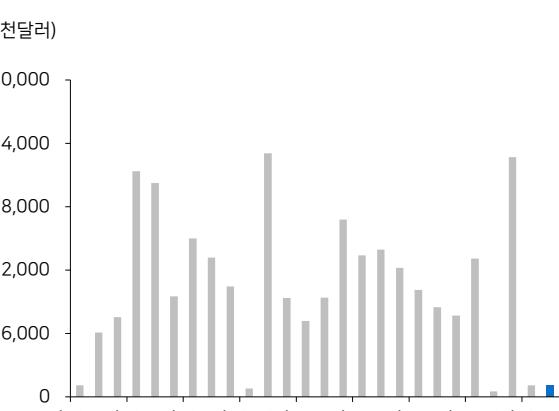
의약품 기타 (보툴리눔 특신 추정)

기간	수출금액(천달러)	중량(톤)	YoY(%)	QoQ(%)
'17.1	6,891	6.9	144.4	136.1
'17.2	8,776	8.8	162.6	81.8
'17.3	8,781	8.8	201.1	4.1
'17.4	7,738	7.7	109.4	12.3
'17.5	6,878	6.9	59.8	-21.6
'17.6	12,551	12.6	160.9	42.9
'17.7	7,477	7.5	21.9	-3.4
'17.8	12,148	12.1	153.5	76.6
'17.9	15,264	15.3	168.2	21.6
'17.10	12,306	12.3	321.7	64.6
'17.11	13,021	13.0	169.7	7.2
'17.12	13,644	13.7	62.3	-10.3
'18.1	15,265	16.2	130.0	28.8
'18.2	2,637	5.1		



기타 화학공업제품 (Sofsbuvir 추정)

기간	수출금액(천달러)	중량(톤)	YoY(%)	QoQ(%)
'17.1	7,182	8.2	566.2	841.3
'17.2	9,394	19.3	54.4	(59.2)
'17.3	16,769	15.5	122.7	79.1
'17.4	13,374	32.9	(37.3)	86.2
'17.5	13,941	23.0	(31.1)	48.4
'17.6	12,212	15.4	28.4	(27.2)
'17.7	10,122	5.0	(32.4)	(24.3)
'17.8	8,470	24.5	(35.7)	(39.2)
'17.9	7,676	7.5	(26.5)	(37.1)
'17.10	13,071	7.9	1,613.1	29.1
'17.11	495	20.1	(97.9)	(94.2)
'17.12	22,676	24.7	142.2	195.4
'18.1	1,085	5.6	(84.9)	(91.7)
'18.2	1,088	2.1		



주: '18.2데이터는 2월 11일까지의 잠정치

자료: TRASS,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태영)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6.1%
중립	3.9%
매도	0.0%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